

# 캐나다 스포츠 분석업체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가별 메달 전망 “한국, 금 3·은 2·동 2… 종합 14위 오른다”

스노보드 최가온-쇼트트랙 여 3000m 계주·김길리 금  
노르웨이-미국 1위 경쟁… 아시아에선 일본 11위 최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3개를 획득해 메달 순위 14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계 스포츠 강국 캐나다의 스포츠 정보 분석업체 쇼어뷰 스포츠 애널리틱스(SSA)가 4일 연합뉴스에 제공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국가별 메달 획득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메달 순위(금메달 수 기준) 14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따내 메달 순위 14위에 올랐다. 2018년 평창 대회 때는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역대 동계올림픽 최고 성적은 2010년 밴쿠버 대회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따내 종합 5위에 이름을 올렸다.

SSA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온(세화여고)과 빙상 쇼트트랙 여자 1500m 김길리(성남시청)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우승할 가

능성이 크다.

은메달은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와 여자 1500m 최민정(성남시청)이 따내며, 동메달은 쇼트트랙 여자 1000m 최민정, 2000m 혼성 계주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 밖에 봅슬레이 남자 4인승, 여자 컬링의 경우 4위로 예상돼 경기

당일 컨디션 등에 따라 메달권 진입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업체 예상대로 최가온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한국 스키 사상 동계 올림픽 첫 금메달이 되며, 이 종목 3연패를 노리는 ‘월드 스타’ 클로이 김(미국)을 꺾는 결과가 된다.

노르웨이(금 14개), 미국(금 13개), 독일(금 12개) 순으로 메달 순위 상위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

으며 개최국 이탈리아는 금메달 7개로 7위에 오른다고 SSA는 전망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로 11위, 중국은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로 1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은 7일(한국시간) 개막해 22일까지 ‘지구촌스포츠 축제’를 이어간다.



캐나다 스포츠 정보 분석업체로부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전망되는 최가온(왼쪽)과 김길리.



연합뉴스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시범경기를 찾은 관중들이 경기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 2026 KBO 시범경기 내달 12일 개막 3월 24일까지 팀당 12경기… 오후 1시 시작

2026 프로야구 KBO리그 시범경기가 다음 달 막을 올린다.

KBO 사무국은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6 KBO 시범경기 일정을 4일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시범경기는 팀당 12경기씩 총 60경기가 편성됐다.

개막일인 3월 12일에는 키움 히어로즈-두산 베어스(이천), 삼성 라이온즈-한화 이글스(대전), SSG 랜더스-KIA 타이거즈(광주), kt wiz-롯데 자이언츠(부산), LG 트윈스-NC 다이노스(마산) 5개 구장에서 경기가 열린다.

이번 일정은 잠실, 고척, 인천 문학, 수원, 대구, 광주, 창원 등 주요 구장의 그라운드 공사 및 사용 불

가 일정을 고려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일부 구단은 제2구장이나 방문 경기 위주로 일정을 치른다.

시범경기는 소속 선수와 육성 선수 모두 출전할 수 있으며, 엔트리 인원 제한은 없다. 모든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하고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치르지 않는다.

우천 등으로 취소된 경기는 재편성하지 않는다.

비디오 판독은 팀당 2회 신청할 수 있으며, 2회 연속 판정이 번복될 경우 1회가 추가된다.

체크 스윙에 대한 비디오 판독 기회도 팀당 2회 주어지며, 판정이 번복되면 기회는 유지된다.

## 아스널, 첼시 꺾고 리그컵 결승 선차

맨시티-뉴캐슬 승자와 한판

아스널이 첼시를 누르고 잉글랜드 풋볼리그(EFL)컵대회인 카라바오컵 결승에 선차했다.

아스널은 4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카이 하베르츠의 결승골로 첼시에 1-0 승리를 거뒀다.

‘런던 라이벌’ 첼시를 상대로 지난달 15일 원정 1차전에서 3-2로 이긴 아스널은 1, 2차전 합산 점수에서 4-2로 앞서 결승에 진출했다.

아스널은 이 대회에서 1992~1993 시즌 이후 33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노린다.

마지막 우승 후 세 번 결승에 올랐지만 모두 패했다.

결승 진출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에 무릎 꿇어 우승을 놓친 2017~2018시즌 이후 8년 만이다.

아스널은 이제 맨시티-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승자와 오는 3월 23일 런던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우승을 다툰다.

맨시티는 뉴캐슬과 준결승 원정 1차전에서 2-0으로 이겼고, 5일 안방에서 2차전을 치른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뒤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나현. 연합뉴스

##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샛별’ 이나현 “긴장하지 말고 즐겨야죠”… 금빛 질주 시동

“이제 올림픽이 실감 나네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신(新) 빙속여제’ 김민선(의정부시청)과 함께 강력한 메달 후보로 떠오른 ‘샛별’ 이나현(한국체대)이 첫 실전 훈련에 나서며 ‘금빛 질주’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이나현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

움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 처음 참여해 트랙을 돌며 현지 적응 훈련을 했다.

김민선을 비롯한 남녀 대표팀 선수들이 지난달 30일 밀라노로 출발한 가운데 이나현은 개인 훈련을 이어가다가 2일 대표팀에 합류해 이날 첫 훈련을 소화했다.

2005년생 스프린터인 이나현은 2024년 1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 월드컵 5차 대회 여자 500m에서 37초34의 기록으로 세계 주니어 기록을 갈아치우며 빙상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주인공이다.

이나현은 대선배 김민선과 여자 500m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해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4개(금2·은1·동1)를 목에 걸고 차세대 스프린터로 인정받았다.

이나현은 “메달을 꼭 따겠다는 마음보다는 준비했던 것을 긴장하지 않고 다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 같다”고 했다.

합

축

격

CONGRATULATIONS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고 현 규

조부 : 고임계 · 조모 : 강순자  
부 : 고성표 · 모 : 신승희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값진 결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고씨 전서공파 익농공 종친회 친족 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14대 회장

김 우 찬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을 갖고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으로 제주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회장 손 태 일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